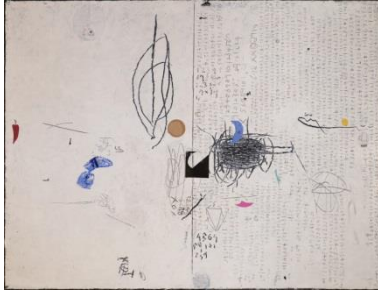


《오세열: 은유의 섬》



〈무제〉

2021

캔버스에 혼합매체

112x145.5cm

전시제목 : 《오세열: 은유의 섬》

전시기간 : 2021년 4월 8일(목) – 2021년 5월 5일(수)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출 품 작 : 회화 24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408-20210505_오세열, 은유의 섬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1년 4월 8일(목)부터 5월 5일(수)까지 오세열(b. 1945, 서울) 개인전 《은유의 섬》을 연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내면의 가치를 새롭게 고민해 보자는 의도로 마련한 전시다. 오세열은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몰두하기를 고집해온 작가다. 유년의 감각을 재료 삼아 특유의 반(半) 추상 화면을 구성한다. 낙서하듯, 소꿉장난하듯 그려낸 화면에 어린아이의 동심이 깃들어 있다. 아이와 노인의 마음이 공존하는 화폭이다.

학고재가 선보이는 오세열의 4번째 개인전이다. 지난 2017년 2월에 연 《암시적 기호학》展에서는 오세열의 화면에 나타나는 도상들의 의미와 조형성을 살폈다. 같은 해 11월에 선보인 《무구한 눈》展에서는 그의 인물 형상이 드러내는 서정성에 주목했다. 4년 만에 다시 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오세열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한다.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회화들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동심을 향해 가는 여정과 같은 이 전시는 어린이날까지 계속된다.

2. 전시 주제

내면의 가치 중요해진 비대면 시대, 오세열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 마스크로 반쯤 가린 서로의 얼굴에 익숙해지고, 사적 모임에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덕목이 됐다. 전 지구적 재앙을 불러온 이 질병은 우리 개인의 일상에 뜻밖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잠시 멈추자”는 제안을 통해서다. 외출을 줄이니 내 집을 한 번 더 돌볼 수 있다. 물질세계로부터 거리를 두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여유도 생겼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면의 순수를 탐색하는 데 몰두해온 오세열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이유다.

오세열은 1945년, 종전 및 해방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여섯 살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의 폐허 한가운데서 유년기를 보냈다.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내면을 돌아봤다. 마음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그림으로 꺼내는 일을 좋아했다. “어린 시절에는 하루 중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다”고 회상하는 77세 화가의 화면 위에 아이의 동심이 살아 숨 쉰다. 오세열은 후기 산업사회를 겪으며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성에 대해 고민했다.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신적인 것이 소멸해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의 화폭은 지친 인간의 마음을 보듬는 장소다. 오세열은 마음을 돌아보는 예술로 현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은유의 섬 - 아이와 노인의 마음이 공존하는 화면

오세열의 화면은 직설적인 어조 대신 은유의 화법을 구사한다. 평평한 물감 층을 긁어 만든 흔적들이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장난기 가득한 낙서처럼 화폭 위를 부유한다. 은유는 하나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는 힘을 지닌다. 오세열의 기호들은 정해진 의미에 갇히지 않으며, 폭넓은 사유와 해석의 여지를 연다. 은유의 말은 풍부한 상상력을 품고 있다. 화면 위 빼곡한 숫자들은 어린 시절 칠판에 쓰인 산수 문제 같다가도, 이내 빠르게 흘러가는 달력 속 날짜들로 탈바꿈한다. 인물의 옷깃 언저리에 놓인 단추들은 마치 아이가 놀다 남기고 간 흔적처럼 보이는 동시에, 그 옷을 여며 주는 노인의 정성 어린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박영택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시 서문에서 “화면의 피부는 매우 납작하지만, 그 위로 물감과 사물이 생명체처럼 서식한다”라고 언급했다. 오세열의 화폭은 신비한 도상들이 서식하는 섬 같다. 바깥세상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내면의 순수함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은유의 섬이다. 오세열의 유년기 기억과 현재의 마음이 하나의 화면 위에 사이좋게 공존한다.

3. 작품 소개

– “명조체 인용구”는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의 전시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무제〉
2021
캔버스에 혼합매체
130x97cm

“주어진 사각의 틀은 대부분 단색으로 마감되어 있거나 두 면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는 가로선이 그어진 노트의 행간을 연상시키거나 칠판 자체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 따라서 화면은 캔버스이자 공책, 흑판 등으로 몸을 바꾸면서 시선을 교란시킨다. [...] 화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대지와도 같다. [...] 외형적으로는 단색조의 화면이지만 그 안은 상당히 풍성한 표현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붓질과 두터운 마티에르로 정교하게 구성되고 있다. [...] 화면, 그림은 흡사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이들을 자극한다. 이처럼 오세열의 바탕 화면 자체가 이미 많은 사연과 풍부한 표정, 깊은 시간을 지닌 피부를 저장하고 있다.”



〈무제〉
2021
캔버스에 혼합매체
112x145.5cm

오세열은 작업 화면을 스스로의 몸에 빗대어 바라본다. 캔버스 위에 단색조의 물감을 수차례 쌓아 올려 바탕을 마련하고, 뾰족한 도구로 화면을 긁어낸다. 화면 속 선들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때로 장식적으로 그려진다. 몸을 깎는 마음으로 화면을 구성해나가다 보면 물감 층 가장 아래의 하얀 표면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오세열은 자신의 작업 과정이 마치 “유년의 순수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 같다고 느낀다.



〈무제〉
2021
캔버스에 혼합매체
112x145.5cm

“작가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물을 화면에 직접 끌어들인다. 인쇄물, 단추, 손가락, 플라스틱 기물 등이 화면 안에 조심스레 안착되어 숨을 쉰다. 그것은 그려진 그림과 애매하게 뒤섞여 있다. 여러 가지 일상 용품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화폭에 붙어나간다. 별 볼일 없는 것, 하찮은 것들이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받으며 등장한다. 그에 따라 이것은 순수 회화도, 순수 조각도 아닌 두 범주가 합쳐진 것이 되었다.”

〈무제〉(2021)의 노란색 화면은 지난가을 작업실 근방 용문사에서 은행나무 잎이 바닥에 한가득 떨어진 모습을 본 기억을 소재로 그렸다. 오세열의 화면은 화가의 기억과 행위,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 소박한 사물들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장소다. 단추와 손가락, 종이 조각 등 일상의 오브제가 화면에 도입된다. 그의 캔버스는 무언가를 재현하기 위한 배경이라기보다, 다양한 소재와 재료가 공생하는 하나의 환경으로서 기능한다.



〈무제〉
2019
함지박에 혼합매체
69x46cm

오세열은 함지박을 회화의 지지체로 자주 활용한다.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끼우는 관습에서 벗어나 보자는 생각에서 일상 속 함지박을 작업에 들여왔다. 그림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편안한 옷을 입히고자 한 의도다. 화면 안에서 콜라주 형식으로 활용되던 오브제가 화면 그 자체로 확장된다. 형식과 내용이 하나의 몸으로 뒤섞인 '회화-조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점의 함지박 회화를 만나볼 수 있다.

4. 작가 소개

오세열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삼십대에 조선화랑, 진화랑 등 당대 최고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른아홉 살이 되던 1984년, 유럽의 대표적인 아트페어 피엑에서 남관, 박서보, 김기린, 이우환 등과 함께 작품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페어에 작품을 출품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학교재(서울; 상하이), 바지우갤러리(파리), 폰튼갤러리(런던), 보두앙르봉갤러리(파리)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교토시립미술관(교토, 일본), 부산시립미술관(부산)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대전시립미술관(대전), 프레데릭 R. 와이즈만 예술재단(로스앤젤레스, 미국) 등 주요 미술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열 - 회화이자 사물인 표면

박영택 | 경기대학교 교수, 미술평론

화면

화면의 피부는 매우 납작하지만, 그 위로 물감과 사물이 생명체처럼 서식한다. 다양한 작가만의 표식들이 풀이나 돌처럼 흩어져있다. 그것들이 희한하게 어우러져 매혹적인 작품을 일군다. 그림과 콜라주, 오브제와 조각적 행위가 섞인 상태로, 낙서와 장난 같은 것들이 마음 가는 대로 표면에서

팅군다. 우연성과 자발성에 기댄 이 조형적 행위는 연쇄적인 고리 안에서 순환한다. 숫자들은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적혀있고 그것 자체로 자족적인 독해될 수 없는 선, 기호들이 곳곳에 출몰한다. 그 사이로 꽃과 새 등의 형상을 거느린 콜라주가 얹혀있다. 그 주변에는 작은 일상의 사물들이 은밀하게, 조심스레 안착되었다. 그림과 콜라주, 오브제들은 표면 위에서 차이를 무화시키면서 공존한다. 이미 배경이 되는 바탕 화면 자체가 견고하고 풍부한 물성의 흔적, 아득한 시간과 풍화의 과정을 농밀하게 저장하면서 거의 조각에 가까운 오브제화된 피부를 회임하고 있기에 그 위에 올라간 모든 것들은 밑바닥에서 자연스레 베어 올라오는, 불가피하게 밀려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면과 분리되지 않는 그림이자 바탕을 지지대 삼아 그것과 내용적, 형식적 연관성의 공모관계를 부단히 조성하는, 일구어가는 그림이다.

오세열은 캔버스 혹은 캔버스 천을 뒤집어 틀에 고정하고 나무 합판을 덧대 단단한 지지대로서의 바탕 면을 마련한다. 표면은 균질하고 두툼한 물감의 층으로 덮여 있는데 무수한 붓질, 수많은 공정이 축적되어 있기에 아득한 시간의 이력을 간직한 벽면처럼 치밀하다. 사각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한편 바닥면이 드러나도록 표면을 부분적으로 벗겨 내거나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화면을 양분하는 꼴을 갖춘다. 그로 인해 화면은 부단히 실제 납작한 칠판이나 노트와 동일시되거나 단단한 벽면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주어진 사각의 틀은 대부분 단색으로 마감되어 있거나 두 면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는 가로선이 그어진 노트의 행간을 연상시키거나 칠판 자체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 따라서 화면은 캔버스이자 공책, 흑판 등으로 몸을 바꾸면서 시선을 교란시킨다. 동시에 그 화면은 무엇인가가 그려지거나 쓰여지고 실제로 오브제가 부착되거나 선반이 설치되어 실제 사물이 자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화면은 단지 회화적인 표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고 이질적인 것들을 죄다 허용해주는 영역이 된다. 화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대지와도 같다.

오세열은 바탕 면을 단색조의 물감으로 치밀하고 견고하게 마감한다. 그것은 바탕을 색으로 채우는 일만은 아니어서 작가만의 신체적 리듬과 호흡, 신경, 감각, 붓질의 탄력 등으로 조율된 모종의 힘으로 메워나간다. 무엇보다도 쫓득하고 조밀하며 촉각적이지 형언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각을 동반하는 표면을 만드는 일이다. 이 피부가 그림의 핵심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것은 유채의 번들거림을 지우고 무광의 것으로 만드는 한편 자신만의 독특한 질감을 이루는 일, 이를 성형하는 전략이다. 일종의 물감의 오브제화이기도 하다. 단색주의 회화 내지 색면추상 회화에서 엿볼 수 있는 균질하고 물성적인 표면의 맛을 만날 수도 있다. 로버트 라이먼이나 애그니스 마틴의 그림에서 접하는 물감 자체의 특성과 물질성과 느낌만을 순수하게 실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각기 다른 캔버스 표면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과의 유사성이 있다. 동시에 그림의 표면이 망막에 일으키는 반응이 진정한 주제인 그림들과의 연관성도 강하다. 비교적 균질하게 칠해나간 화면은 두드러진 물감의 물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그 피부를 유심히 보면 내부는 다채로운 붓질들이 두드러지게 얹혀있다. 외형적으로는 단색조의 화면이지만 그 안은 상당히 풍성한 표현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붓질과 두터운 마티에르로 정교하게 구성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가로, 세로 붓 자국들이 교차하거나 서로 뭉개지면서 두텁게 바른 물감이 화면을 채우고, 가운데로 갈수록 이런 붓 자국들이 조밀해지며 색채가 강해지는 필립 거스톤의 1950년대 페인팅을 연상시키는 회화들도 있다. 이른바 '움직이는 베일'과도 같은 표면과도 같은 효과를 지닌 화면이자 그로 인해 화면, 그림은 흡사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이들을 자극한다. 이처럼 오세열의 바탕 화면 자체가 이미 많은 사연과 풍부한 표정, 깊은 시간을 지닌 피부를 저장하고 있다.

선

오세열 그림은 단색으로 두툼하게 도포된 화면 위에 무심하게 그은 다소 희한한 선들이 종횡으로 산포되는 특징을 지닌다. 특정 형상의 이미지가 출현하기도 하지만 화면 곳곳에는 마치 풀처럼 자라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바람 같기도 하고 낙서와도 같은 선들이 묘하게 서식한다. 그것은 무목적의 것들,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것들, 차마 가시화할 수 없는 것들을 애써 표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목적론적이고 합리적인 그림의 이유를 뭉개는 선이자 그것을 휘발시키는 가벼운 선의 비상이다. 선들은 그런 울동과 비약으로 춤춘다. 표현과 반표현의 경계에서 꿈지락거리는, 의도를 지우고 목적을 망실하고 그것 자체로 자족하는 선들의 향연과도 같다. 그래서 재현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무모한 항거의 표시와도 같은 이 선들은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빈 공간, 여백을 채워나가려는 다소 무모한 본능에서 비롯된 선들이기도 해서 그저 짧고 간결하게 떠돌고 소용돌이친다. 온전한 형상과 문장을 짓거나 지시하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가닿지 못해 절망한 것들의 당당한 약동이 여기저기 새싹처럼 움튼다. 그저 목적 없이, 별다른 의도 없이 그어진 어떤 매력적인 선이 결국 회화가 된다.

초서의 어느 한 부분 같기도 하고 도자기 표면에 시문 된 초화 문양 일부를 추출해 온 것이자 수결(手訣)의 한 부위를 연상시키는 것들이기도 하다. 휘갈겨 쓴 서체의 흔적이기도 하다. 하여간 그런 것을 닮은 선이다. 이 모호한 선들은 마치 새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땅바닥에 찍힌 여러 흔적을 또한 암시한다. 일종의 기호나 부호와도 같고 또한 선 그 자체로 단순하게 자리한 것들이다. 이 선들은 우선 캔버스의 사각형 틀을 의식시키는 차원에서 밀변과 일치되게 가로선이 그어지면서 수평을 만들기도 해서 공책에 인쇄된 선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미세한 차이를 동반하면서 그어진 선들과 함께 곳곳에 작고 양증맞게 흩어져 부유하는 여러 선들이 실제와 환영의 구분을 넘나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출현하는 선들은 소용돌이치듯 원형을 이루고 그려진 선이다. 이는 마치 사이 톰블리가 크레용을 이용해 끼적이던 선 등을 연상시킨다. 타원형을 이루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선 혹은 수평으로 길게 자리하며 무심하게 죽죽 그어나간 선들로 이루어진 그림은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서 그림 안에서 특정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제각기 다른 선들은 특정한 형상, 이미지 못지않게 다양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매개인 동시에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림의 욕망을 상기시켜주고 충족시킨다. 사실 이 작고 단순한, 소소한 선의 감각적인

운용만으로도 그림은 충분해 보인다.

오브제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어눌하고 해학적이며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인물, 그리고 꽃과 일상의 기물, 문자와 숫자 등이다. 이것들은 그려지거나, 실제 오브제들을 화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그려지고 쓰이고 접속되어 있다. 실제와 가상이 혼거한다. 그림과 실재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생을 영위한다. 그림 역시 캔버스, 물감 등의 오브제로 구성된다. 그것 자체가 특별한 물질의 연출이다. 이 물질성의 강조는 감각적으로 직접 지각되는 작품의 특성이 내용을 능가하고 이미지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오세열은 물감과 붓질로 충분히 성형된 추상적이고 물성적, 촉각적인 화면 위에 인간의 형상을 올려놓는다. 정면이나 측면의 이 상은 외눈박이에 단출한 마감으로 성형되어 적막한 바탕 면을 배경으로 고립되듯 출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그림처럼 거칠고 간결하게, 아무렇게나 그리듯이 혹은 자연발생적인 형태를 따르려 했고 오염되지 않은 지각을 옹호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장 뒤뷔페의 '아르 브뤼' 스타일과도 같은, 그렇지만 이를 훨씬 세련되게 조율하는 선에서 마감하고 있다. 물감의 성질로 충분히 채워진 화면 위에 인간의 형상뿐만 아니라 문자나 숫자 혹은 모호한 선들을 올려놓았다. 이 그리기, 쓰기는 주어진 캔버스 자체를 마치 벽면이나 칠판, 노트와 동일하게 다루는 동시에 그 장소, 공간에 이미 누군가 기입했던 낙서나 흔적을 자연스레 연상시킨다. 일상의 공간에 자리한 이미지 흔적을 절취하고 차용한 그림에 해당하니 이것 역시 레디메이드 전략에 기반한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작가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물을 화면에 직접 끌어들인다. 인쇄물, 단추, 숟가락, 플라스틱 기물 등이 화면 안에 조심스레 안착되어 숨을 쉰다. 그것은 그려진 그림과 애매하게 뒤섞여 있다. 여러 가지 일상 용품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화폭에 붙어나간다. 별 볼일 없는 것, 하찮은 것들이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받으며 등장한다. 그에 따라 이것은 순수 회화도, 순수 조각도 아닌 두 범주가 합쳐진 것이 되었다. 이른바 콤바인 페인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사물을 긁어모아 끌어들이므로써 이미 그림이 화가의 머릿속의 논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환기시켜주기도 한다. 동시에 이는 콜라주의 확장에 해당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론은 철저하게 회화 안에서 이를 보조하고 긴장감 있게 맞물리는 선에서 추려진다.

나가는 글

오세열은 이미지와 물감의 질료성과 붓질 자체의 추상성, 그리고 문자와 숫자의 기입, 오브제의 부착 등의 복합적인 작업을 통해 상당히 풍부한 화면에 볼거리와 여러 감각을 연출해낸다. 어눌하고 해학적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림의 경지를 펼쳐 보이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노련하게 가공된, 매우 세련된 조형미로 버무려진 것이다.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색면추상과 물성의 강조, 레디메이드 전략과 콜라주와 콤바인 페인팅 차용, 그리고 한국 전통미술의 자연주의 성향과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미학이 두루 숨 쉬고 있다. 그러나 오세열 그림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억과 향수 속에 자리한 모종의 흔적을 이미지화하는 일인 듯하다. 그것은 사라진 것들, 온전히 재현되고 가시화할 수 없어서 그저 모호하고 애매하게 더듬어보고 머뭇거리듯이 끼적이고 긁고 칠하고 문질러 보는 일이자 아득한 시간의 층을 복기하듯 질료화 시켜 보는 일이다. 지난 시간의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몸의 감각에 의지해 절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6. 작가 약력

오세열

- 1945 서울 출생
- 1969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경기도 양평에서 거주하며 작업

주요 개인전

- 2021 은유의 섬, 학교재, 서울
- 2020 천진난만한 천재, 바지우갤러리, 파리
- 2018 아트센터 쿠, 대전
- 2017 기억의 흔적, 일우스페이스, 서울
해든뮤지움, 인천
무구한 눈, 학교재, 서울
암시적 기호학, 학교재, 서울
- 2016 기억의 층위, 학교재 상하이, 상하이
아트이슈프로젝트, 타이베이
기억의 층위, 폰튼갤러리, 런던; 한국문화원, 브뤼셀; 한국문화원, 파리
- 2015 신작, 보드앙 르봉 갤러리, 파리
- 2008 샘터화랑, 서울
- 2000 샘터화랑, 서울
- 1997 예화랑, 서울
- 1991 예화랑, 서울
- 1987 가람화랑, 서울
- 1986 진화랑, 서울

- 1984 진화랑, 서울
- 1982 신세계미술관, 서울
- 1977 문화화랑, 서울
- 1975 조선회랑, 서울

주요 단체전

- 2020 ㄱ의 순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및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9 블루, 초이스 아트 컴퍼니, 서울
- 2015 구상과 자각, 아트이슈프로젝트, 타이베이
- 2014 사유로서의 형식; 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 2007 무의식, 두방현대공간, 타이베이
오세열 · 유종호, 샘터화랑, 서울
- 2003 내 안의 풍경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현대미술조명, 예화랑, 서울
- 1999 한국미술의 자생적 지평, 포스코미술관, 서울
- 1998 대전-공간확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1994 현대회화 3인, 청화랑, 서울
한국지성의 표상,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2 오세열 · 안토니카마라사, 샘터화랑, 서울
- 1990 한-일 현대미술 동질과 이질, 미술회관, 서울
개관기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89 서울-교토 37인,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 1988 한국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개관기념초대, 서미갤러리, 서울
- 1987 개관기념: 80년대 작가, 갤러리현대, 서울
개관기념 3인, 평화랑, 서울
- 1986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3 한국현대미술, 비스콘티아홀, 밀라노, 이탈리아
- 1981 청년작가 10인, 신세계미술관, 서울
제3회 조형, 관훈미술관, 서울
제2회 제작, 예화랑, 서울
구상작가 2백호, 신세계미술관, 서울
- 1980 제2회 한국화랑협회, 갤러리현대, 서울
제1회 조형, 미술회관, 서울

- 1979 서양화 30대 8인, 문화화랑, 서울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 미술회관, 서울
- 1977 제17회 구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75 공간미술대상 초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상

- 1976 제3회 한국일보사 한국미술대상전, 최고상
- 1972 구상공모전, Y氏상
- 1971 구상공모전, 금상
- 1969 구상공모전, 은상
- 1965-80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5회, 입선 9회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국회의사당, 서울
-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한국일보사, 서울
- 프레데릭 R. 와이즈만 예술재단, 로스앤젤레스, 미국